

제 1 회 농축산 박람회 개최

—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

민 병 호
(월간양계 기자)



△ 박람회 개막식 테이프절단식 광경

농수축산신보(대표 한남석)는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농수산부,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 축협, 동아일보, KBS의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국내 첫 축산박람회를 수많은 양축가,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을 비롯 정부관계관, 학계, 업계, 양축가 농민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박람회에 참석한 업체는 종계장, 도계장,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축산기자재, 농기구, 축산관련품목과 유·육가공제품업체 등 66개 업체로서 3백 44개 제품이 전시되었는데, 국내에서 59업체 300 품목이, 외국업체에서 7개업체

44 품목이 선보였다. 양축가와 농민들의 새로운 정보교환과 경영안목을 높여줌으로써 축산업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관련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비교와 선택할 수 있는 전문을 넓히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중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에 참석차 내한한 50여개국 1천 5백여명의 해외 석학과 관광객이 참석하여 박람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현대의 박람회는 산업의 발달과 신제품의 개발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홍보를 시작으로 해서 첨단기술제품의 정밀도와 실용도 등 현저



하게 대회규모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번 축산박람회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든다면, 참가업체중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품의 질과 기술에서 국내 우수한 업체가 불참했다는 것이 아쉽다. 물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는 잘했다고 하겠지만 주최측의 홍보와 업체의 호응도가 적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전라남도에도 소재한 K고교의 한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축산박람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학생 40여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수 업체가 참석한것 같지 않으며 장소가 협소해 20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고 분야별로 정돈된 감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업체별 전문가의 배치도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도의 한 양축가는 「참으로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극찬하며 서울에서만 하지말고 지방을 순회하는 것도 좋을것 같다고 말하고, 좀더 넓은 장소에서 농기구, 기자재 등을 조작·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했다.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양축가들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바램을 덧붙였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장소의 협소로 인한 몇개 분야는 전시의 어려움마저 따랐고, 정리 정돈이 미흡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

다.

반면 참관자들의 호응도는 높아 양축가, 학생, 축산관련업계 등이 대거 참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계속 박람회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처음 시작이 중요한만큼 이번 행사의 주최측의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제주도의 한 양축가는 거리관계상 참관이 어려워 서울의 친척을 통해 꼭가서 참관하고 자료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참가 업체와 농축산인들과 밀접한 관계 증진과 제품의 선택,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심어준 것은 높이 평가될만 하며, 업체의 새로운 제품개발과 서비스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규모가 작은 축산관련업체에서는 회사소개를 하는 기회가 되어 계속 영업을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는가 하면,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업체가 다수 참가를 했다면 보다 좋은 내용의 박람회가 될 수 있었던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으며 AAAP서울대회에참석한 외국인의 눈에 과연 우리나라의 축산업계가 박람회를 통해 얼마나 인식이 되었나 하는 점이 의구심으로 남고 있다.



다행히 이번 박람회는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